

그리스는 없다? 그리스는 있다!

‘문명의 배꼽, 그리스’ 박경철 지음

왜 하필 지금, 그리스인가? 그리스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최근들어 그리스 열풍이 불고 있다. 그리스를 여행하고 다녀와 쓴 여행기와 신화를 재해석한 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신화나 인문학에 관심있는 독자들을 다소 불편하게 한다. 인류의 지혜와 고전적인 감성이 응축되어 있는 책마저 유행처럼 취급되는 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신화의 국가, 오늘의 그리스는 참담하다. 경제는 파탄났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다.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신인도는 바닥을 친다. 외형상, 아니 경제적 관점의 그리스는 사실상 ‘켄봉’의 상태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리스는 끝났다고 판단하는 건 명백한 오류다. 한 개인의 지력이 가치와 정신적 자산에서 발현되듯 국가의 흥망성쇠 또한 그런 내적인 문화적 자질에서 배태된다. 그리스는 세계가 인정하는 신화의 국가이자 오늘날의 서구 문명을 창출한 태토다.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씨가 그리스를 여행하고 돌아와 쓴 ‘문명의 배꼽, 그리스’가 화제다. 책 내용만을 두고본다면 저자의 직업이 의심스러울 만큼 그리스 신화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넘쳐난다. 그리스 문명의 속살을 정밀하게 파고드는 일면은 환부를 진단하는 외과의사 특유의 시선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의사와 신화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저자는 이 이질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을까. 그리스 여행을 떠나기전 ‘그리스인 조르바’로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저작물과 소설, 기행문, 서간을 포함해 많은 자료와 해외 문헌 등을 읽었다.

여행은 2011년 그리스 본토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터키 남부, 남부 이탈리아 등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졌고 아직도 여행은 진행중이다. 네 차례에 걸쳐 육로와 해로를 통해 이동한 거리만도 지구 한바퀴 반, 어림잡아 4만km에 이른다.

“여행하는 동안 신화의 콘텍스트, 문명, 민주주의, 터키, 압제, 레지스탕스(저항세력), 코라보레이터(매국노), 대중, 신앙, 돈, 권력, 신, 인간 등 어마어마한 키워드들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다른 나라 혹은 타 문명권의 역사나 속살을 이해하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 순간이었다”

비록 저자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바탕으로 그리스를 바라보지만 시종일관 자신만의 독특한

한 시각을 견지하려 애쓴다. 고대 유적지의 보고 ‘구코린토스’와 고분의 본질을 꿰뚫는 초연함이 깃든 ‘아폴론 신전’, 고대 그리스비극의 모태 ‘글라우케 샘’에서 그리스의 독창성과 함께 인간의 유한함을 본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연대기적 서술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유가 펼쳐진다는 데 있다. 공간에 대한 탐험은 단순한 여행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여행기의 구조를 빌리고 있지만 그곳을 채우는 내용은 성찰과 신화, 전설과 사람이 어우러진 인문학의 향취다.

공간을 따라 파도노라마처럼 펼쳐진 그리스 문명을 찬찬히 훑고 나면 한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금의 그리스가 그리스의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인류 문명을 꽃피웠던 신화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리더스북·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이크로코린토스의 외성. 고대의 돌로 세운 베네치아와 터키 양식의 성벽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인은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가

‘미국을 만든 책 25’ 토마스 C. 포스터 지음



그가 제시한 신화는 ‘중요한 이야기들의 묶음’으로 미국의 역사, 가치, 관심사 등에 관한 소중한 원칙이 담겨 있다. “신화는 지속적인 대화이고 모든 책들은 그 대화에 뭔가를 추가하고, 뭔가를 반박하며, 뭔가를 기여한다. 내가 볼 때 그런 대화는 지속적인 매혹의 원칙이다”

한편 리스트에 선정된 책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탄생한 이후에 집필되었고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제외되었다.

종교를 다루면서도 안되며 작가는 미국인 혹은 미국 땅에 오래 산 사람으로 제한했다. 주제는 미국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했다.

<알에이치코리아·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주화 어머니’ 아웅산 수치의 드라마틱한 일대기

‘아웅산수치 평전’ 피터 폼햄 지음



평화상 수상, 가택연금 해제까지의 일대기가 드라마틱하게 그려졌다.

이 책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수치의 인간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치의 정치적 성공 비밀과 함께 인간적인 고뇌, 지적인 사유와 유머 감각, 평화로운 혁명에 대한 열정, 이로 인해 희생해야 했던 가족 사랑과 소박한 꿈이 진솔하게 전달된다.

수치 및 그녀의 가족, 친구들의 인터뷰를 하는 등 책을 집필하기 위해 5년 동안 버마에서 은밀하게 취재활동을 했던 저자는 아웅산 수치를 ‘버마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불가사의한 존재’라고 표현했다.

<왕의서재·2만5000원>

/김경원기자 kki@kwangju.co.kr

‘밥’ 한글자 뒤에 숨겨진 세상이야기

역사로 복원한 왕자님의 실체

조선 왕실 제2권력, 세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운명

‘세상을 담은 밥 한 그릇’ 주영하 외 지음



원 교수 등 7명의 강연자가 비슷한 듯 서로 다른 이야기거리를 들고 청소년을 만났다.

‘밥’이라는 한 글자 뒤에는 어머니 마한 세상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생존의 밥, 사랑과 희생의 밥, 권력다툼의 밥, 나눔의 밥, 살림과 자연의 밥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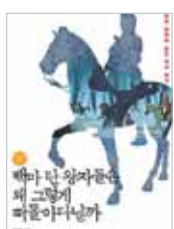
‘밥’에는 먹고사는 존재로서의 인간 서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자연요리가 문성희, 문학평론가 이명원, 길담서원 박성준 대표, 국어교사 정대영,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대학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음식에 담아내는 자연요리 연구가 문성희는 자신의 요리 철학을 청소년들에게 들려준다. <구리·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백마 탄 왕자들은..’ 박신영 지음



영은 명작 동화 속 숨어 있는 역사와 당대의 관점에 주목했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해당 동화가 ‘옛날이야기’가 아니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종의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잡자는 숲 속의 공주, 독이 든 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를 비롯한 동화 속 모든 공주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왕자의 구애를 받고 결혼한다는 점이다. 도대체 그 많은 왕자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왜 그렇게 남의 나라 영토를 싸돌아다니고 있었을까?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는 이런 도발적인 질문들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을 파헤친다. 역사 에세이를 써오던 저자 박신

영은 명작 동화 속 숨어 있는 역사와 당대의 관점에 주목했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해당 동화가 ‘옛날이야기’가 아니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종의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책을 읽고 난 후 바라보는 명작 동화의 세계는 처음 만난 동심의 세상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동화도 시대와 역사의 기록임을 깨달았다면 다시 동화책을 펼쳐볼 것을 권한다.

<페이퍼북·1만35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비운의 조선 프린스’ 이준호 지음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궁 밖으로 내쫓긴 정종의 아들 불노, 감시에 지켜 타락의 길에 들어서던 양녕대군, 조정의 이권에 의해 성종과 문명기 뒤바뀔 월산대군, 아버지의 견제로 죽음을 맞이한 소헌세자 등 조선 왕자 7명의 비극적인 삶이 고스란히 정리돼 있다. 각 장 마지막에 왕자들의 가계도와 연표를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저자는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기존 역사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록되지 않은 왕자들의 이야기까지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왕을 주제로 한 책은 많았지만 왕자를 중심으로 한 역사서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본다.

<역사의아침·1만3000원>

/김경원기자 kki@kwangju.co.kr

신간

▲해피 패밀리=소설가 고종석의 세번째 장편소설. ‘해피 패밀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친근하고 가깝다 여겨온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 회의를 날카롭고 서늘하게 그려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비극적인 역사를 지나온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핏줄에 대한 끈끈한 애정과 탄탄한 연대의식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허망하고 위선적인 것인지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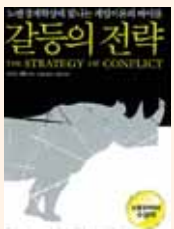
<문학동네·1만2000원>

▲중국근현대사 1~4=그동안 피상적이고 일국사적인 체제 중심의 중국 인식을 탈피해 19세기 이래 기나긴 역사 발전의 연속성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조명해 냈다. 현재 중국 근현대사 연구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장 학자들이 참여해 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통사 체계를 완성해 냈다. 일본의 이와나미서점에서 2010년부터 출간하고 있는 이 책은 출판사 설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6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삼천리·권당 1만5000원>

▲갈등의 전략=게임이론 분석을 통해 갈등과 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 공로로 2005년 토머스 셸링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안겨준 저자 중 첫 저서다. 게임이론은 경쟁 주체가 상대방의 대항행동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려는 행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2만3000원>



▲버락의 꿈들=구레 출신 정치자 작가의 르포집. 망원시장에서 18년동안 숙육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조태성씨, 매달 1만km 이상을 고속도로 위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이승준씨,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받는 100만원 남짓한 급여로 기적처럼 생활을 꾸려나가는 이맹례씨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저자는 이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글을 쓰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모순과 99%의 이렇없는 사람들의 삶을 응시한다.

<삼창·1만4000원>

▲마르크스의 사랑=카를 마르크스의 서거 130년을 맞아 인간 마르크스를 새롭게 조명했다. 마르크스와 부인 간의 사랑,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친구들과 나는 각별한 우정, 가정부인 헬레나 데무트와 마르크스 부인 예니 사이에 얽힌 진실 등을 자세하게 들려준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혁명가와 투사와 사상가 마르크스가 아닌 아들과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인간 마르크스’라는 새로운 마르크스를 만나게 해준다.

<두레·1만3000원>

▲아내가 결혼했다 외=‘동경없는 세상’으로 제6회 문학동네작가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온 박현욱 작가가 지금까지 펴낸 4권의 책이 새 모습으로 독자와 만난다. 장편소설 ‘동경없는 세상’, ‘새는’, ‘아내가 결혼했다’와 소설집 ‘그 여자의 침대’, 일관성 있는 포맷 위에 각 작품의 개성을 잘 살린 디자인으로 새 옷을 입혔다.

<문학동네·권당 1만원~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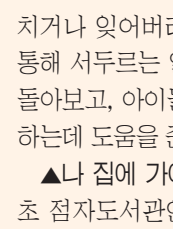
▲나꼼살과 손악질 마녀의 착한 경제 팍팍!=팍팍캐스트를 통해 500만명 이상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경제 방송 ‘나는 꼼수다’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만든 어린이 경제책. ‘어린이를 위한 나는 꼼수다’ 시리즈 1편인 ‘나꼼살과 손악질 마녀의 착한 경제 팍팍!’은 협동의 경제를 이야기 한다. 협동과 배려를 통해 ‘나’가 아닌 ‘함께’ 잘 사는 경제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경제라고 이야기한다.

<레디앙어린이·1만2000원>

▲우리나라 곳곳에 나의 손길이 필요해=소외된 이웃을 돕는 관련 기관을 찾아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로 구성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단체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작은 나눔과 행동으로 행복한 사회를 꿈꿀 수 있게 도와준다.

<뜨인돌어린이·9500원>

▲불량 식품이 왜 나빠?=싫어하는 음식은 손도 안 대고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는 먹보 대장이 되는 고양이 램프의 좌충우돌 편식 극복



이야기. 밤늦게 몰래 창밖으로 빠져나가 쓰레기통 속까지 뒤지고 결국 배탈이나 병원 신세를 지는 램프는 병원에서 혼자 하룻밤을 지내면서 반성을 하게 된다.

<푸른솔주니어·8500원>

▲빨리빨리 너의 시간 느릿느릿 나의 시간은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며 여유없는 삶을 산다. 하지만 ‘빨리빨리’를 외치며 서두르는 동안 우리가 놓치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없을까? 책을 통해 서두르는 일상에 익숙한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고, 아이들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풀빛·1만원>

▲나 집에 가야 해=고정욱 작가가 국내 최초 점자도서인 한국점자도서관을 세운 고(故) 육병일 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 멀쩡한 사람들 읽을 책도 부족할데, 장애인 들 읽을 점자책을 왜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을 극복하고 도서관을 설립한 육 관장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 줄 것이다.

<BF북스·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